

35차 직업능력개발 훈련신호등

2020년 5월-6월

양호 사업주(25.19), 컨소시엄(18.73), 자산맞(26.30), 근로자(19.48), 원격훈련(23.97)

주의 실업자(30.53)

위험 -

● 계량 ● 비계량



※ 위험지수 0이상 30이하: 양호(●), 30초과 70이하: 주의(●), 70초과 100이하: 위험(●)

●●● 사업별 평균 위험지수는 이전차수 대비 2.36점 하락한(26.4점 → 24.0점) 가운데 실업자훈련은 '주의 수준'으로 나타남

· 실업자훈련(7.15점↓) 위험지수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자산맞훈련 위험지수만 이전차수 대비 소폭 증가(1.25점↑)

●●● 지도·감독 건수는 94건으로 실업자훈련(60), 사업주훈련(22), 근로자훈련(11), 자산맞훈련(1) 순

· 훈련장비 미준수, 훈련교강사 미준수, 훈련교재 미준수 등

●●● '20년 1~6월 참여인원은 실업자훈련(59.9%↑)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사업주 25.0%↓, 컨소시엄 25.2%↓, 자산맞 33.4%↓, 재직자 53.2%↓, 원격 5.5%↓)하였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종합의견

훈련현장동향 Keywords

원격대체

- 집체훈련의 원격대체 변경신고 건수는 증가 추세
- 시스템 구비 등 기업 여건으로 인해 비대면 훈련 이후 대기업 및 영세기업 간 원격대체 훈련 참여에 대한 양극화 현상 확인

훈련침체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전반적인 훈련수요 감소현상 지속
- 중단(연기)되었던 훈련은 대기업 자체훈련 위주로 재개되는 분위기이며, 중소기업 및 제조업분야 훈련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편

위험지수 양호

25.19점
(3.11점▼)

부정부실 제보 건수의 감소로 계량지수가 하락하였고, 공단 소속기관, 고용센터 및 심평원의 체감 위험지수가 하락한 영향

| 2020년 1~6월 주요 실적 |



훈련기관
1,692



훈련과정
17,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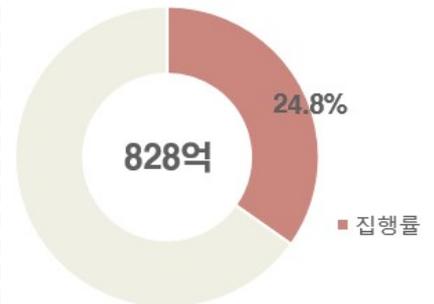


참여기업
65,672

| 참여인원 |



| 예산집행 |



기관별 훈련동향 Issue

훈련기관, 기업

- (코로나19) 대부분의 기관에서 훈련과정 축소, 연기, 취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법정훈련의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교육이므로 훈련을 정상 진행하는 분위기
- (원격대체) ▲훈련생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 그룹간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경우, ▲소수 정예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쌍방향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긍정적 반응을 보임

공단(본부/지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원격대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원격훈련 시스템 설치 및 이용의 어려움 등 열악한 기업여건으로 참여할 의사는 있으나 실제 비대면 훈련 참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SK(주), 주식회사 케이티와 같은 대기업은 재택근무 실시직원도 많은 상황이라 직무에 필수적인 기술직군의 훈련을 원격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비대면훈련 이후 기업별 훈련의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는 현상이 나타남



훈련신호등 **종합의견**

01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훈련과정 축소·연기·취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훈련의 양극화 심화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훈련 성과 평가 도구 마련, 훈련 운영방식 개편 등 훈련기관의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한 자발적 노력 또한 병행되고 있음

0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고용부를 중심으로 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시책들이 훈련기관과 기업의 훈련 참여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이 필요

훈련현장동향 Keywords

훈련정원



- 코로나19로 인해 수요 예측이 어려워 훈련기관의 훈련정원에 대한 상한선(120%) 완화 또는 하한선(70%) 완화 요청 확인

성과평가



- 코로나19 사태로 상반기 실적이 부진하고, 하반기 감염증 2차 유행이 예상되는 등 연간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성과평가 목표량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험지수 양호

18.73점
(1.27점▼)

비계량 위험지수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부정부실 제보 건수 및 부정훈련 특정패턴 건수 등 계량지수가 하락한 영향

| 2020년 1~6월 주요 실적 |



훈련기관
129



훈련과정
2,821



참여기업
10,112

| 참여인원 |



| 예산집행 |



기관별 훈련동향 Issue

훈련기관, 기업

- (유급휴가훈련) 코로나19로 인해 업체 대부분이 사업물량이 없어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만족도조사) 훈련기관에서 만족도조사 이후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제시 요청

공단(본부/지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특별고용지원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제외되었으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 12월 말)이 남아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STX조선해양은 파업 및 물량감소에 따라 7월부터 유급휴가훈련 위주로 훈련 재개



훈련신호등 종합의견

01

훈련의 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비대면 훈련의 경우 훈련정원에 대한 유연한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02

만족도조사 설문지 개편은 시계열분석 및 성과측정·결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여 즉각적인 변경은 어려우나, 응답률 제고 방안 및 구체적인 결과 제공 등 개편 검토 예정이며 충실한 결과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응답자 수 확보가 중요

조사·분석 결과

2020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만족도 조사
(진행 중)

훈련현장동향 Keywords

수시과정

- 수시과정 훈련계획서 작성 및 심사절차에 대한 간소화 요청
- 정시과정에 비해 승인이 까다롭고 훈련비도 낮아 훈련의 질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 심사 주기 단축으로 인한 수요 반영 효과성에 대해 주시 필요 (*분기별 심사→월별 심사)

수요조사

- 실시 시기 등의 문제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요조사 결과를 훈련과정 개발 전에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인자위 수요조사를 분기별로 실시 및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위험지수 양호

26.30점
(1.25점▲)

33차 이후 위험지수 지속 상승, 부정훈련 특정패턴 건수와 고용센터의 체감 위험지수 증가가 위험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침

| 2020년 1~6월 주요 실적 |



훈련기관
69



훈련과정
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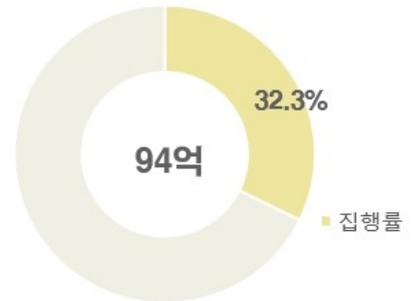


참여기업
5,127

| 참여인원 |



| 예산집행 |



기관별 훈련동향 Issue

훈련기관, 기업

- (유급휴가훈련)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으나, 임금이 훈련비에 포함되어 훈련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예산 부족 현상 발생
-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피드백 운영사례 공유, 조사 문항 개선 및 구체적 결과 제시 요청

고객패널

- (채용예정자) 코로나19로 인한 채용예정자 훈련생 취업 일정에 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간 채용예정자 과정의 경우 훈련수료 후 3개월 이내 취업이 특히 어려움
- (목표조정)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훈련정원을 1/2로 감소시켜 운영하는 등 연간 목표 실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인원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훈련신호등 **종합의견**

01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요조사의 현실화(시기 조정) 및 역할의 명확화 등 훈련기관의 개선 요구가 있으므로 검토 필요

02

유급휴가훈련 수요에 비해 훈련비 부족 등으로 훈련공급 어려움 확인, 지역 간 훈련비 조정에 대한 검토 중

조사·분석 결과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훈련만족도 조사 (진행 중)

훈련현장동향 Keywords

자부담



- 자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으로 전반적인 모집 어려움 확인
- 고용위기지역 재직자의 경우 자부담이 없어 공예, 화훼, 요리, 제과제빵 등 취미 목적의 훈련 참여 사례 증가

단기과정



- 훈련상담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과정에 대한 문의 증가
- 단기과정이면서 자부담이 낮은 근로자 과정이 선호되고 있으며, 재직자 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증가

카드발급



- 카드발급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되면서 훈련문의는 증가하였으나, 일부 훈련의지가 없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중도탈락률 등에 대한 부담 증가

위험지수 양호

19.48점
(0.63점▼)

훈련 특정패턴 검출건수 및 고용센터의 체감 위험지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이전치수 대비 소폭 하락

| 2020년 1~6월 주요 실적 |



훈련기관
2,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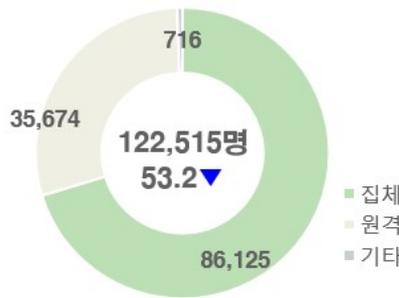


훈련과정
32,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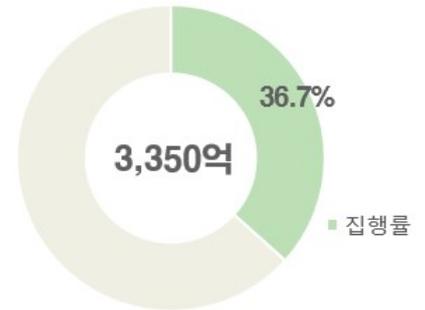


참여기업
33,687

| 참여인원 |



| 예산집행 |



기관별 훈련동향 Issue

훈련기관, 기업

- (대구지역 조치 필요)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했던 대구지역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전국 기준으로 산정되는 취업을 성과(자부담률) 등에 대해 한시적 완화 조치 필요
- (재수강) 140시간 미만 과정에서는 훈련생의 숙련도 및 자격 취득률 향상을 위해 동일과정에 대한 재수강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회복추세) '20. 4월 이후부터 전년대비 수준으로 훈련이 회복되고 있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자부담 면제 등으로 관련 참여자 증가 추세
- (원격대체) 훈련기관 중 일부 이론강의를 원격강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출결관리 및 강의내용 부실 등이 우려되고 있음



훈련신호등 종합의견

01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고 훈련기간이 짧은 재직자 단기과정에 대한 실업자들의 참여 증가. 이로 인해 훈련기관의 취업을 성과에 대한 부담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40시간 미만 과정 편중운영 등 현상 발생

02

카드발급 및 서류제출 등의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편의성은 크게 나아졌으며, 훈련 모집 또한 4월 이후부터 점차 전년대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이론강의를 원격훈련을 전환하여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출결관리 및 강의내용 부실 등이 우려되고 있음

훈련현장동향 Keywords

비대면훈련



· 교강사 수업 노하우, 수업내용 저작권, 영상촬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원격 훈련 진입을 망설이는 사례

근로자과정



· 140시간 미만 근로자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율 증가
· 실업자훈련생이 단기과정으로 설계된 근로자훈련을 복수 수강하며 취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 확인

요양보호사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양보호사 과정 실습 중단, 실습 미이수 훈련생 누적되면서 실습이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 증가
· 취업, 자격증 취득 등의 지연에 대한 훈련생 우려 확인

위험지수

주의

30.53점
(7.15▼)

훈련 특정패턴 검출, 지도감독 의뢰 건수, 부정 언론보도 건수 등 전반적인 계량 위험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2020년 1~6월 주요 실적 |



훈련기관

· 계좌제: 3,415
· 국 기: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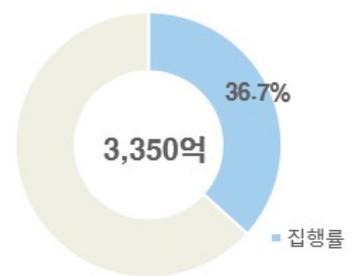
훈련과정

· 계좌제: 23,621
· 국 기: 2,096

| 참여인원(계좌제, 국기) |



| 예산집행 |



기관별 훈련동향 Issue

훈련기관, 기업

- (일자리 연계 자격증 과정 선호) 코로나19로 인해 단기근로자, 프리랜서 등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서 새로운 분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훈련생 증가. 기술습득 과정 분야에 참여하는 경향이 많고 자격증 위주로 활용 할 수 있는 과정 선호
- (온라인 수강신청) 훈련생 본인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시 컴퓨터가 없거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는 훈련생(ex.고령) 수강 포기사례 다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취업률) 규정 변경으로 인해 취업과 상관없이 근로자 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증가. 훈련기관에서는 실업자의 경우 취업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취업의지가 없는 사람이 근로자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책 필요
- (훈련품질 우려) 훈련이 위축되면서 소수 훈련생 과정도 영세훈련기관 위주로 개설되고 있어, 극소수인원 과정에 대한 훈련품질 우려 확인



훈련신호등 종합의견

01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이후 실업자·근로자 간 교차수강 허용으로 인해 훈련생의 훈련 과정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훈련 참여율이 높아진 반면, 실업자 훈련생이 단기 과정으로 설계된 근로자 훈련을 복수 수강하며 취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큼. 최초 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하지 않고 다른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무분별한 훈련쇼핑을 제재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02

하반기부터 스마트 혼합훈련(비대면 훈련) 실시 예정으로, 실업자·국기 훈련의 원격훈련 운영 효과성,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완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훈련현장동향 Keywords

OTP



· 훈련생 인증시스템(OTP)이 전면 적용('20. 4. 6.)됨에 따라 도입 초기에 훈련생 문의가 다수 있었으나, 현재는 원활이 진행되고 있음

주52시간



· 업무시간에 훈련을 실시하기 힘든 실정으므로 시간이 짧은 강의를 선호하는 경향
· 업무 중 훈련을 병행하기 어려운 병원 근무자의 훈련참여가 감소세를 보임

자부담



· 집체 위탁훈련 자부담(10%)에 비해 원격훈련 자부담은 10~72%로 높은 편
· 원격훈련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집체훈련과 동일한 비율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험지수

양호

23.97점
(3.23점▼)

소속기관, 고용센터, 심평원 등이 체감한 비계량 위험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부정훈련 특정패턴 검출건수가 크게 하락하였음

| 2020년 1~6월 주요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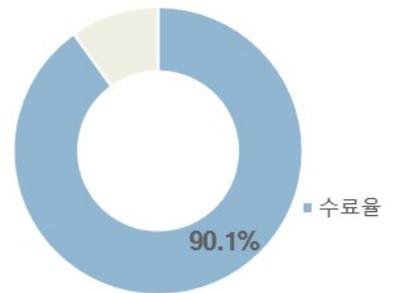


참여사업장 42,056 | 사업주: 41,016
| 컨소시엄: 1,040

| 참여인원 |



| 수수료율 |



기관별 훈련동향 Issue

훈련기관, 기업

- (코로나19) 코로나19 이후 원격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훈련 참여 문의 증가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변경 이후 훈련참여에 대한 문의는 증가하였으나, 자부담 상승으로 인해 참여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 자영업자가 훈련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직무와 연관된 훈련과정 선택폭이 좁아 참여가 매우 저조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고객패널

- (스마트통합훈련) '20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통합심사 및 일반고 특화 심사를 통해 스마트통합훈련(집체+원격)이 훈련시장에 확대 공급될 예정
- (훈련기관 인증 제도) 훈련기관 구분이 집체와 원격으로 나누어져 있어, 스마트통합훈련(집체+원격) 등 B/L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훈련기관 구분(집체 또는 원격) 없이 훈련기관 자체 역량에 대한 인증평가 진행 후, 집체·원격 훈련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훈련신호등 종합의견

01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경기, 사회분위기 영향으로 원격훈련 참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원격훈련 참여인원은 전년대비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근로자훈련을 제외한 원격훈련 참여인원은 전년 동기대비 오히려 증가 추세

02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장기화에 대비하여 훈련방법이 다양화(집체훈련 → 스마트통합훈련)됨에 따라 심사, 운영, 모니터링 등 훈련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안정적인 모니터링 수행으로 부정·부실훈련 관리 필요

우수사례, 부정·부실 의심사례

우수사례



- 💡 (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생의 다기능화를 위해 직종을 통합한 훈련과정 운영
 -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멤브레인, 용접, 취부 등 직종별로 분리 운영하던 채용예정자과정을 통합 운영 예정 <현대중공업>
- 💡 (학습조직화) 공업단지 내 다수 기업들이 학습조직화 사업에 참여하여, 상호 소통을 통해 신규 진입기업에 운영노하우를 전수해주고, 학습네트워크 형성을 원활히 하는 사례 <(주)동성티씨씨, 티제이하이텍(주), (주)송원>

부정부실 의심사례

- 💡 (실업자훈련) 훈련생 모집 시 국비무료과정을 듣기 위해 선행 교육 훈련을 사비로 듣게 하는 등 코로나19로 지도·감독이 느슨해진 점을 틈타 부정 출결 및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 (원격훈련) 법정의무교육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마케팅 활동 확대
 - 코로나19를 이용하여, 마스크 및 방역용품지원 등을 제시하는 마케팅 활동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접촉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주훈련 품질지수



77.41%

‘20년 5~6월 집체훈련 수료율
(수료인원 / 참여인원)

1.55%

‘20년 6월 기준 중소기업 훈련참여율
(참여기업 / 전체 중소기업)

3.56%

‘20년 6월 기준 중소기업 피보험자 훈련참여율
(참여인원 / 전체 중소기업피보험자)